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아침뉴스 50 웰컴 투 시월드(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 이야기 是是非非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 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웰컴 투 돈월드(재)	00 대한민국 행복발전소(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 뉴스 20 MBC특별생방송 2013 김장채소 직거래 큰 장터	00 SBS 12 뉴스 30 KJB배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재)
1	00 뉴스 특보 1~2부	00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35 힐링투어 야생의 발견(재)	25 통일 전망대	30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
2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5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3	00 명랑해결단(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구름빵2(재) 55 TV유치원(재)	00 MBC 경제 뉴스 10 도비도비 40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00 SBS 뉴스 1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4	10 박종진의 뉴스 쇼 쾌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숫자로 읽는 부산 넘버쇼〉 55 튼튼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맘마미아	30 똑? 똑! 키즈스쿨	00 아이 엠 몽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브라보 멋진 인생	05 토크콘서트 〈화통〉
7	10 갈데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8	20 채널A 스포츠 특집 다큐 〈다윗과 골리앗의 격돌〉 50 채널A종합뉴스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스페셜 55 1대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 21
9	50 채널A 스포츠 WBA세계 밴텀급 타이틀 매치 〈손정오 vs 가메다 고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쇼	3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0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기황후〉	45 축구국가대표평가전 〈대한민국vs러시아〉
11	1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①:00 나이트라인 30 더 쇼
12	20 웰컴 투 시월드(재) ①:30 웰컴 투 돈월드(재)	30 국악의 향기 ①:10 생활의 발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①:45 MBC 플러스 특선 〈무한걸스〉	

EBS

06:10 세계의 눈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브루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9:05 시계마을 티키톡
09:20 부모 〈두 얼굴의 아이〉
10:00 한국기행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임미자의 365일 기본반찬! 김치 담그는 날 - 총각김치, 굴깍두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천하무적 한자 900
13:3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3:45 바두와 친구들
14:00 잘난 체리우스 박사님
14:15 팅가팅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와글와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6:4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보니하니
19:30 두키 탐험대
20:00 EBS 뉴스
20:20 청소년 리얼체험 땀
20:50 세계테마기행 〈러시아〉
21:30 한국기행 〈속리산〉
21:50 EBS 다큐프라임 〈천국의 새〉
22:45 장수의 비밀
23:15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과 나, 때때로 당신〉
24:05 지식채널e
24:10 세계명작극장

EBS플러스1

00:0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01:00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01:40 내신6감 〈일반사회〉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 Ⅰ A형〉
05:00 〃 〈수학 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한국사(1)(2)〉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탐스런 〈한국사(3)〉
14:00 2015 수능 스타트 〈수학 A형(2)〉
15:00 〃 〈수학 B형(2)〉
16:00 〃 〈국어 A형(2)〉
17:00 〃 〈영어 A형(2)〉
18:00 탐스런 〈동아시아〉(재)
19:00 〃 〈한국사(1)〉(재)
20:00 〃 〈한국사(2)〉(재)
21:00 〃 〈한국사(3)〉(재)
22: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재)
23:00 〃 〈Basic Grammar〉(재)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다큐프라임 세계의 자연 시리즈 〈수학 3-2〉
07:50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 〈수학 4-2〉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수학 5-2〉
08:30 요리비전 〈수학 6-2〉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상)〉
10:30 〃 〈수학① (하)〉
11:10 〃 〈역사①〉
11:50 중학 2학년 〈영어2-2〉
12:30 〃 〈비문학2〉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15:10 초등 기말 학업 성취도 평가
15:40 〃 〈수학 3-2〉
16:10 〃 〈수학 4-2〉
16:40 〃 〈수학 5-2〉
17:10 스쿨랜드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영어〉
18:00 〃 〈과학〉
18:40 원더풀 싸이언스(3)(4)
20:20 EBS문화사시리즈 〈제3편 지금도 마로니에는〉
21:20 등업신공 〈과학①-2〉
22:00 중학 퍼펙트 체크업 〈사회 3-2〉
22:40 TV 중학 3학년 〈영어 3-2〉
23:20 〃 〈비문학〉
24:00 EBSe 새활영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9일(음 10월 17일 己丑)

子 36년생 상호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48년생 악조건이 오히려 호재를 부르리라. 60년생 주저하다 놓친다면 후회 막급할 것이다. 72년생 일시적인 것은 의미가 없느니라. 84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행운의 숫자 : 46, 64

丑 37년생 만족스럽겠다. 49년생 소모적인 경쟁은 상호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61년생 정석대로만 행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73년생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85년생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07, 38

寅 38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하다. 50년생 의외의 성과에 매우 흡족해 하는 모습이다. 62년생 대사를 도모하는 큰 판국이 보인다. 74년생 평소에 신뢰해 왔던 이가 갑자기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56, 73

卯 39년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51년생 미진하다면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63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덤벼야만 결말이 날 것이다. 75년생 계발할수록 테크닉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17

辰 40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52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느니라. 64년생 가리지 말고 수용하고 볼 일이다. 76년생 기다리는 것은 안 오고 아무 상관없는 것만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8, 40

巳 41년생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3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게 되리라. 65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 77년생 다툼이 생길 수이니 자기 논리가 분명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1, 87

午 42년생 내용성이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이니라. 54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함께할 필요가 없겠다. 66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만 가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78년생 급기야 성사시키는 통쾌함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66, 10

未 43년생 주변을 잘 정리한다면 약진의 발판이 되리라. 55년생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귀에 거슬리더라도 따르는 것이 좋다. 79년생 위력 앞에서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11, 33

申 44년생 중복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 5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실수 하리라. 68년생 갑자기 급등하여 크게 놀랄 수도 있느니라. 80년생 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실행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0, 28

酉 45년생 이루어지겠지만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57년생 분명한 입장에 서서 절차대로 이행함이 순리이다. 69년생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81년생 일단락이 지어진 이후부터가 문제로다. 행운의 숫자 : 58, 01

戌 46년생 의외의 협조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다. 58년생 머지않아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니라. 70년생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82년생 관용이야말로 궁극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49

亥 47년생 전체적으로 낱낱이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59년생 비전을 제시해야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71년생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게 되리라. 83년생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5, 3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첫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 최고의 낭만"

'낭만가객' 최백호, 새 싱글 음반 발표

〈최백호〉

"첫사랑을 노래하는데 나이는 전혀 관계없어요. 늙은 노래, 젊은 노래가 없듯이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요."

'낭만 가객'인 싱어송라이터 최백호(63)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애틋한 첫사랑을 고백했다. 최근 발표한 싱글 음반 '첫사랑'에서다.

여의도에서 만난 그는 "마누라와 30년 살다 보니 탈출해야겠는데, 지금 바람은 날 수 없으니 첫사랑이나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농담부터 건넸다.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날 부산으로 통학하는 기차 안에서 콧날이 오뚝하고 눈이 크고 얼굴이 하얀 단발머리 소녀를 봤어요. 3년간 가슴앓이를 하느라 공부도 안 했죠. 말 한마디 못해보고 밤마다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덕에 지금 가사를 쓸 수 있나 봐요. 하하."

말 그대로 지난 몇 년간 최백호는 가수로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 지난해 10월 기타리스트 박주원 등의 후배들과 작업한 월드뮤직 앨범 '다시 길 위에서'를 냈고 올해는 아이유, 에코브릿지의 앨범에도 목소리를 보탰다.

"성격상 자연스러운 게 좋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템포도 느려요. 후배들과 인연을 맺어도 산울림의 김창완 씨처럼 술 한잔 편히 하지도, 밥 한번 따로 먹지도 못해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건지, 정이 없는 건지…. 하지만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과 쉽게 끝나진 않아요. 구창모, 배철수 씨와는 20년 넘게 지금도 1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요."

이처럼 후배들과 접점이 있는 중견 가수들은 꽤 있지만, 그보다 윗세대 선배를 챙기는 가수는 드물다. 그는 ㈔한국음악발전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최근 1960년대를 풍미한 한명숙, 안다성, 명국환의 신곡 앨범을 기획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데뷔곡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작곡해준 최종혁의 첫 앨범 프로듀서도 맡았다.

이 곡의 가사는 스물한 살 겨울에 어머니를 그리며 쓴 사모곡이었다. 그가 스무 살이던 10월 15일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누나 둘에 외동아들인 그에게 어머니의 기대는 컸지만 그는 중·고교 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속을 썩였다. 자신의 탓인 양 회한이 밀려와 사흘 밤낮을 울었다. 술을 마시고 부산의 한 부두를 걸으며 쓴 글이었다.

"(최)종혁이 형님과 술을 먹다가 '이것도 노래가 되겠느냐'고 그 글을 건넸어요.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 곡을 붙여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어머니가 외동아들이 걱정돼 주신 선물이었나 봐요. 전 문학 공부도 안 했는데 간혹 제가 쓰는 가사를 보면 어머니가 준 능력 같아요."

그는 "송창식 형님을 만날 때마다 새 앨범을 내라고 한다"며 "형님이 만들어둔 노래가 1000 곡이 있다는데 차라리 우릴 주던지…. 그런 형님이 있어야 후배들의 공간도 넓어지고 새로운 움직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배우로서 이름 되찾으려 돌아왔죠"

장근석, KBS '예쁜남자'로 안방극장 복귀

"장근석이란 이름을 되찾기 위해 이 작품을 선택한 겁니다. 스타 배우가 되고 싶어요."

한류스타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장근석(26·사진)은 18일 논현동 한 호텔에서 열린 KBS 새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콘서트를 할 때 외롭더라.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뭘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원초적인 건 배우의 자리에서 연기하는 거였다. 어떻게 하다보니 너무 다른 것들이 나의 메인(중심)이 되지 않았었나 싶고, 동시에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드라마는 국보급 외모와 마성을 지닌 '독고마테'(장근석 분)가 대한민국 상위 1% 성공녀 10인방의 여심을 훔치면서 얻은 노하우로 진정한 '예쁜 남자'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여기에 마테만을 바라보며 짝사랑하는 보통 여자 '김보통'(아이유)의 로맨스가 그려진다. 천계영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장근석은 이 작품에 끌린 이유로 "처음 캐스팅 제안을 받고 만화 원작을 충분히 다 봤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작품이고 굉장히 도전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장근석스러운' 캐릭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작 '사랑비'의 시청률 부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전작의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기 전에 막상 내 나라에선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어필하지 못한 건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더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상대역 아이유와의 호흡에 관해서는 "아이유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지켜드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로 존중한다"며 "아이유는 배우 직업을 오래 해왔던 것처럼 호흡이 상당히 길고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대사 한 번만 맞춰봐도 맞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아서 관계가 정말 좋다"고 답했다.

16부작인 이 드라마는 오는 20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최유순 할머니의 흥겨운 인생

장수의 비결(EBS·밤 10시45분)=인천시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난데없이 색소폰과 기타, 아코디언 선율이 흘러나온다. 따라 가보니 시끌벅적한 가족음악회에서 춤을 추는 87세, 최유순 할머니가 있다. 작은 체구지만 꼿꼿한 허리와 다부진 체격의 할머니. 50대 며느리와의 팔씨름에서도 거뜬히 승리하는 근력 왕 시어머니가, 이 집의 대장님이란다. 추억의 추어탕 맛으로 수십 년째 단골들이 발길을 끊지 않는 곳. 남들은 일 년에 한두 번 하는 가족모임이 유순 할머니네는 무려 열두 번.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가족음악회 날로 정하고 20여명의 대가족이 시끌벅적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음악과 음식으로 하나 되는, 유순할머니네 가족. 화목한 가정 속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들여다봤다.

행복한 몽골 문화 전도사

러브 인 아시아(KBS1·오후 7시30분)=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에서 아이들이 웃을 수 있길 바라는 오너(28)씨. 그는 몽골의 문화 전도사로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전통춤을 독학으로 갈고 닦아 공연에 참가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다문화 센터를 통해 공연을 한 번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면서 한국에 제대로 된 몽골 문화를 전파하고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몽골 전통 춤 공연뿐만이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여 만든 인형극단의 멤버로 몽골관련 강의까지 연예인 못지않은 꽉 찬 스케줄로 바쁜 오너 씨. 그래서인지 결혼 6년차 주부면서도 살림엔 소질이 없다. 몽골에서 온 행복 바이러스 오너 씨의 멋진 결혼생활을 들여다보자.

어린 준영의 힘겨운 싸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주저앉은 광대뼈, 아래위로 쳐진 눈꺼풀, 틀어진 입. 이 모든 얼굴을 가진 준영이는 안면 기형을 동반하는 희귀 난치질환인 트린처 콜린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준영이는 안면 기형뿐만 아니라 구개열로 음식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난청까지 있어 보청기를 끼고 다녀야 한다. 부모님은 밤낮으로 마음 놓을 수 없다. 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는 준영이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료하러 다녀야 한다. 이런 준영이의 치료보다 부모님이 더 걱정하는 한 가지. 안면 기형을 가진 준영이의 얼굴 성형수술을 수차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의 작은 커튼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와 일용직을 하는 아빠의 벌이로는 가족들의 통장 잔액보다 빚이 더 늘어날 뿐이다.